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김동규 미카엘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 시드니가톨릭신문

##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김동규 미카엘  
 보좌신부: 김민수 야고보  
 전상현 스테파노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이호순 첼레스티나  
 장금자 메리노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03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되리라. &lt;시편 11, 7&gt;

2014년 1월 1일 (월간)

##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인 천주교회

### 친애하는 본당 교형자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 시련의 과정이 지나 하느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4년, 희망찬 갑오년을 맞이하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도 그 동안 우리 공동체를 튼튼한 사랑의 신앙공동체로 굳건히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그리고 사제생활을 하는 동안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신 교우 분들,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한 기도하며 묵묵히 소명을 다해가는 참 신앙가족들, 어렵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 그리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젊은 청소년들, 이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저 같은 부족한 사제도 그 직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

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임하면서 바로 우리 공동체가 좀더 활기찬 신앙공동체로 성장 하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구역과 레지오를 새롭게 편성하였던 것이 오히려 기득권을 뺏기는 듯 느끼는 일부 신자들의 오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끝내 교회 공동체는 극심한 불신과 갈등속에서 서로에게 아픈상처를 주고 받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부족한 사제를 믿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괴롭고 힘들었던 시기조차도 하느님 나라 건설과 그 사랑을 배워 나가는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지난 해 5월, 성지순례를 다니는 과정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들렀습니다. 이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수상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 독일을 대신해 속죄의 참배하는 곳이 이곳 수용소이고 또한 자라나는 독일 청소년들이 빠지지 않고 학기 과정으로 꼭 방문하는 곳도 이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자녀들도 이곳을 꼭 방문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용서는 하되 잔악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하려는 뜻이라 합니다. 잊는 순간 우리는 삶과 역사 안에서 그 잔악한 일들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과 여러분의 믿음에 바탕 하여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우리 한인 성당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인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지난 대림시기를 맞아 우리 본당이 부서진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참 신앙을 그리스도인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 8가지의 덕목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항목으로는 8가지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가치관을 확립 시켜

야 할 덕목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여 왜곡 시키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자신은 물론 남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창피한 일임을, 즉 신앙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는 풍토와 주님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섬길 줄 아는 가톨릭 신앙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둘, 이민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천주교 신자이면서 천주교를 개신교로 착각하는 행동들과 교회 어르신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태도와 행동들,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 보다는 거짓으로 말하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하 나이며 보편된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적 신앙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적어도 교회 어르신들의 말씀을 따르는 가톨릭 복음 삼덕의 순명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셋, 좁은 이민사회에서 부딪치는 사적인 인간관계, 대부분 대가족관계, 생업이나 크고 작은 이권 등에 매여 참 신앙을 사유화시키는 친교위주의 신앙생활을 벗어나 예언자적 소명을 지닌 평신도 사도로서 '예'할 것은 '예'하고 잘못된 행동은 '아니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풍토와 가톨릭 정의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넷,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이 신앙으로 세상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신앙하며 일상에서 희망과 사랑의 모범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해치고 헐뜯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단호히 끊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톨릭

정체성의 가치관을 우리 성당뿐 아니라 한인 사회에 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참 신앙인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주교 교인들이구나'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해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섬김의 삶을 통한 존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은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기도와 성사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 참례(영성체와 고해성사)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기도생활(아침, 저녁기도, 삼종기도, 식사 전, 후 기도 등)와 교우가 지켜야 할 신앙 본분의 6가지의 무를 삶 안에서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고 보여주는 성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생활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고 존중해 주고 떠받드는 성인들(하느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저절로 존중과 섬김의 삶이 아우러지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이 이곳 우리 한인 본당에서부터 이룩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해 나간다면 이 모든 지향들이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빌며, 새롭게 가치관을 세워 나아가려는 우리의 사목에 성령이 충만하게 깃드시길 기도 드립니다.

2014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며  
 시드니 대교구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동규 미카엘

###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더 많은 도움과 빛을 요구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고 자신의 사슬이나 암흑으로 더 빠져들거나, 둘 중의 하나를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 “힘담”

힘담은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흠을 들추어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힘담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며,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힘담은 단 하나 상처만 깊게 남길 뿐입니다.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의 앞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 예전에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다지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 시드니..... 이곳을 떠나려 하니, 이 시가 와 닿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깨달았습니다.

바람처럼 지난 시간들 속에, 마음 속에 아프고 시린 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지냈던 곳이 하느님께서 주신 제일의 보금자리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 정말 얼마만큼 감사드려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 꽃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동기 신부에게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네. 떠나려 하니 어때?", "여기 계신 교우 분들, 청년들, 영영 못 볼 생각하니까 자꾸 아쉬움이 남네. 벌써부터 눈물이 글썽거린다." 그러자 제 동기 신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막상 떠나려니 아쉽지? 걱정 마. 왜 영영 못 봐. 내가 나중에 주임으로 가면 되지."

서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까지 나누었는데, 막상 이곳을 떠나려 하니 인간적인 아쉬움이 웬지 모르게 자꾸 남는 건 사실입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제 자신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겠죠. 부족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에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곁에서 여러 일들을 도와주신 모든 교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네." 지난 시간 설 새 없고 경황없이 지나간 듯해도, 되돌아보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 19, 19)

면 모든 게 감사이고 은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여러 직무들에 빠듯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게 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제 사제 생활에 많은 걸 배우고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은빛대학의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 강의부터며, 각 단체들을 위한 피정 강의, 청년들의 성령 세미나, 성서 연수까지..... 한국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곳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국에서 오시는 신부님들의 주옥같은 강의며, 이곳은 부족하고 젊은 저에게 많은 배움의 시간을 제공했던 곳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곁에서 일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교우 분들, 또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일해 준 청년들, 그리고 너무나 깨끗한 모습에 언제나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끔 해주었던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 내시며,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신 본당 주임 신부님, 곁에서 든든한 동생으로서 함께 해준 스테파노 신부님, 매사 꼼꼼하게 챙겨주시며 많은 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던 첼레스티나 수녀님, 메리노 수녀님께도 지금까지 다 표현해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진심으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19, 19)." 부족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싶은 게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각박하고 경쟁적인 문화들, 그리고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문화 속에, 우리는 점점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할 수 있는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림특강 때, 우리는 류해욱 신부님의 가슴 속 깊이 와 닿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신부님께서 이 말씀을 첫째 날 여러 차례 강조하셨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힘이 없는데, 당연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포기하는 데도, 있는 게 있어야 버리고 포기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비우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주님께 대한 깊은 체험이 늘 바탕이 된다면, 우리는 그 분의 은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드니 한인 본당 모든 교우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19, 19)."를 늘 깊이 새기며 사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하느님께 대한 기도와 그 분 현존 앞에서의 체험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늘 기도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멀리 떨어지게 되지만, 분명 하느님께 사랑과 은총의 힘을 얻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늘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늘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는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민수 야고보 신부)

## 프란치스코 교황, 타임지 선정 '올해(2013)의 인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노숙인과 난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들을 보듬었던 것이 선정 이유로 풀이된다.

타임은 올해(2013년)의 인물로 지난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혔다고 보도하며 '치유의 교회' 실현에 앞장서면서 변화의 물결에도 동참해 새로운 천주교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짧은 9개월간의 재임 기간동안 바티칸 교회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바꿔놓고 있다"며 "신학적 접근이 아닌 치유의 사명을 늘 얘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전 세계 페

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3 페이스북 트렌드(Year in Review)'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1억9000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한 해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많이 회자됐다. 교황님은 교황 선출 전인 2011년 추기경 시절에 이즈 환자들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춘 일로도 유명하다.

교황 즉위 뒤 첫 외부 공식 방문지로는 람페두사 섬의 난민 수용소를 택해 이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현장을 방문했다.

또 11월 초에는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남자를 꺼안고 이마에 입 맞추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베데스다 천연 건강즙**  
정성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한끼 식사값으로 가족의 **한달 건강**을 챙기세요  
베데스다는 無설탕 無방부제 無색소 원칙  
오직 호주에서 재배된 신선한 야채와 과일만을 사용합니다.  
시드니 전지역 배달가능합니다.  
2 Wallace St Sefton 2162  
**9786 4945 / 0425 677 878**

ABN 58 089 086 779  
L/C 21A5002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수시 출발 / 해외 패키지  
2인 이상 여수 익스포 프로그램 /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핑본점 9787 6633 Shop1A, 62-74 Beamish St. Campsie 2194  
이스트우드점 9787 6633 8A, 38 Rowe St. Eastwood 2122  
24시간 출발 긴급 티켓 예약 발권 가능  
대표 : Theresa Myoung Soon Lee M. 0413 110 216

영양돌출전문점  
**북창동 순두부**  
**9868 4300 박만원 (토마스)**  
10/74 RAWSON ST, EPPING

**글로리 병원**  
Glory Medical Centre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MBBS(Syd), FRACGP  
원장 **이욱배 / Dr U.B. Lee**  
Mon - Fri 9am - 6pm / Sat 9am - 1pm  
18 Bridge St, Lidcombe  
**T.9649 3333 F.9649 3366**

**Oh-My**  
오-마이 김밥  
파티, 결혼 및 장례 음식  
el 9718 1118 / Mob 0416 209 750  
**594 Canterbury Rd. Belmore**

아이씨 안경원  
**i see OPTICAL**  
정밀한 시력검사  
최상의 고객만족  
각종개인보험 즉석처리  
녹내장, 망막 황반변성, 백내장, 시야검사  
당뇨 환자의 눈검사, 어린이 시력검진  
렌즈수술 전문의 권의서,  
한국인검안사 6명 근무  
**T 9858 3886** 116 Rowe St Eastwood 2122 (미라식당옆)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분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대호여행사**  
EASTWOOD  
김기남 마리아나 이스트우드 9874 3311  
Mobile 0414 433 611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아시아나 특가발권  
전세계 항공 예약 및 호텔 판매



# 교황청, 사제 아동 성추행 전담 기구 설립

프란치스코 교황 자문 8인추기경단, 특별위원회 설치 발표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전담하는 교황청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문 추기경단인 '8인 추기경평의회'는 12월 3-5일 바티칸에서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교황님이 추기경평의회가 제안한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 전담 기구 설치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선 오말리(미국 보스턴대교구장) 추기경은 5일 기자들에게 "새 특별위원회는 사제 성추행 문제를 다루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방침을 이어받아 활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제 성추행 사건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목적 돌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성추행 관련 특별위원회는 교황청 개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8인 추기경평의회 첫 번째 작품이다. 새 위원회는 아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사, 연구하고, 각 나라 주교단, 지역 위원회, 수도회

총장 등과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맡게 된다. 또한 아동 인권, 정신 건강, 법률 문제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교황청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가톨릭교회 가르침과 기준을 담은 지침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12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현재 성추행 문제와 연루된 사제들의 법적 문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8인 추기경평의회는 2차 회의에서 교황청 각 기구 역할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설립한 8인 추기경평의회는 10월 1-3일 첫 회의를 한 바 있으며 3차 회의는 내년 새 추기경 서임식(2014년 2월 22일)을 앞둔 2월 17-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시드니 대교구장, 조지 펠 추기경님도 8인 추기경평의회 중의 한 분이다.

# 파주에 파티마 성모순례성당 생긴다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집'



▲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본부가 짓고 있는 '파티마 성모순례성당' 조감도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푸른군대, 본부장 하 안토니오 몬시뇰)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평화통일을 위한 성전 '파티마 성모순례성당'을 파주에 세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발사기지'가 될 성당이 자유로 끝 북녘땅과 가장 가까운 곳 휴전선 인근에 세워지는 것이다.

푸른군대는 지난 11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588-1에서 파티마 성모순례성당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연면적 2046㎡, 건축면적 약 203㎡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

로 지어지는 이 성전은 지하에 대성전과 세미나실, 지상에 수녀원과 사무실, 식당 등을 갖춘 이 성전은 푸른군대와 티없이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회원과 은인들이 꾸준히 보태온 정성으로 지어지며,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일반 본당이 아니라 오로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250석 규모의 파티마 성모순례 성당에서는 365일 오로지 파티마 성모님의 평화 메시지와 평화통일 기도가 울려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림특강

## '나는 그 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예수회 영혼의 쉼터 류해욱 요셉 신부님 대림 특강

대림2주째, 12월 10일부터 사흘간 본당에서 열린 대림 특강을 통해 류해욱 신부님은 '어둠을 밝히는 반짝이는 별과 같은 빛,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대림의 참 뜻'이라고 밝혔다. 류 신부님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절절함이 없다면 빛의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림기간중 신앙인 모두가 주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지니자'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교수, 미국 교포사목, 병원 원목사목, 피정의 집 원장을 거쳐 현재 예수회 영혼의 쉼터 원장인 류 신부님은 영혼을 울리는 듯한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고 있는 귀한 존재이기에 자신



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이를 통해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에 닥아가지고 말했다. 또한 성령과 악령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다며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 간다, 성령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 것이라라고 하였다.

(▶관련 인터뷰 기사 4면)

## 울뜨레아 피정

구랍11월 30일 - 12월 1일, Bellambi의 피정센터에서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뜨레아 피정이 있었다. 울뜨레아는 평신도의 최고 영성교육으로 일컬어지는 꾸르실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이를 되새기고 더욱 영성을 키우기 위한 모임으로 이상, 순종, 사랑을 기치로 세운다.

첼레스티나 수녀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계는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라며 죽음 앞에서 울며 불며 몸부림치고 당황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인의

로써는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진원 미카엘 형제, 최병훈 요셉 형제의 영성강의가 있었다.

나눔시간에 참가자들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어린이와 같은 꾸밈없는 열린마음으로 자신들의 체험과 느낌을 나누어 각자 받은 은혜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수 야고보 신부님은 파견미사에서 본인도 서품을 받고 꾸르실로 교육을 받았다고 회상하며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흔들림 없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패밀리 데이 케어**  
Croydon • Newington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공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 놀이를 통한 신나고 재미있는 한글 교육 및 영어 교육
- ★ 가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요, 수, 과학, NIE
- ★ 음악 · 미술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 ★ 간식 / 점심 제공 센터링크 보조(CCB,CCR)

대상연령 3세~취학전 아동

전화 문의: 0422 647 515 (Croydon)  
0425 234 130 / 9648 2786(Newington)

**NOBLE KIA TOYOTA SUZUKI**  
Chullora / Greenacre

한국인 컨설턴트

**에릭 리**  
사도요한

- ★ 무료 Road Side Assistance
- ★ Capped Price Servicing
- ★ 첫 3개월 무료 서비스
- ★ Noble 8year Warranty
- ★ Conditions apply

★ Special Finance Offer 진행중

0498 888 009 elee@noblekia.com.au  
8756 9871(직통) 121 Hume Hwy Chullora

**AECO DENTURE CLINIC**  
에코 틀니 전문 클리닉

Dental Prosthetist 이상현 안토니오

"정성을 다해 틀니를 제작해 드립니다."

전체/부분 틀니  
부서지거나 손상 된 틀니 수정/교정  
험겁거나 맞지 않는 틀니 수정/교정

예약 전화 9874 1099, 0407 380 390  
주소 1/19 Rowe Street Eastwood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사랑을 드리고 신으로받는 영원" 성모치과와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다.드림 Outlet**

아동복 빅사이즈  
여성캐주얼 미씨캐주얼

185 Beamish St Campsie  
Mob: 0414 588 700 (박 멜라니아)

호주 청정우·화환 한국택배 전문업체

**동서유통(벨모아)**

원하시는 부위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전지역 꽃배달

**경 조사용 꽃 배달 서비스 실시!!!**

동서 유통 이수룡 다니엘 070 7884 7560

(동서 정육점 직영)  
351A BURWOOD RD.  
BELMORE 2192 T. 9750-2694 M. 0425 213 503

**NEWBORN NB**  
BUILDING & CARPENTRY

신축, 증축, 실내 인테리어, 샵피팅  
파골라, 데크, 마루 시공, 화장실 레노베이션, 페인팅  
간단한 핸드맨일 문의도 환영

ABN : 35 189 753 315 / LICENCE NO : 2579988C

M 0430 379 269 M 0421 073 706

General Carpentry / Maintenance / Repair / Basement / Shop Fitting  
Remodeling / Owner Builder Assistance & Renovation  
Patio & deck / Bathroom / Kitchen





# ‘그대는 받아들여졌다’

예수회 영혼의 쉼터 원장 류해옥 요셉신부님

“별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자 갈망했던 레위인 세관원의 목마름이 있었기에 그는 어둠을 밝혀주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기에 그는 빛인 주님을 뵈게 된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이런 허기짐이 없다면 일상 삶에서 신앙인들은 결코 빛의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영혼의 울림을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준 류해옥 요셉 신부님은 주님이 나의 마음 속에 오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대림시기요 이를 통해 거듭 태어나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 신앙공동체가 변화될 때 주님의 은총이 각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류 신부님에게 인터뷰를 청하자 ‘대림의 빛이 시드니 공동체에 환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성들여 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A-포 사이즈에 뽀뽀히 기록된 강의 내용 전문을 흔쾌히 내 주신다.

- 신앙인들은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 대림환도 결국 변화되는 모습을 빛으로 상징하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총의 이끌림에 의해 변화하도록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면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총의 움직임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만한 나머지 그것을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은총은 우리가 커다란 고통과 불안에 싸여 있을 때, 오랫동안 추구했던 완벽한 삶이 실현되지 않

아 좌절을 겪을 때, 그때 그 은총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닥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은총은 마치 한 목소리의 속삭임과 같다. ‘그대는 받아들여졌다’ 그대보다 위대한 누군가에 의해,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이름의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고요한 속삭임이다. 지금 그 이름을 물을 필요도 없다. 아마도 훗날 알게 될 것이다. 다만 그대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 특히 호주의 이민사회 안에서 여러 원인과 상황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신앙인들이 한 둘 아닙니다. 자기를 거부하며 자포자기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낙오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실패했고 그나마 벌여놓았던 돈도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족들과 두절하고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 갑니다. 어머니는 만 아들인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간신히 눈을 뜨고 그에게 오직 한마디를 하십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길 사흘간을 버티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그토록 못나고 불효한 자식인 그가 밥이나 굶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평생 그 걱정만을 하고 살아온 것이다. 스스로 하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어머니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미워하고 살았던 그는 자신을 용서했고 자신을 버린 아내, 사기를 친 친구도 용서했다. 이 ‘잠언록’의 저자인 폴 킬리히는 ‘믿음이란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받아 들일 수 있는 용기’라고 정의했다.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쉽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



영성가인 헨리 나우웬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자기 거부이다. 단지 그대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지적했다.

- 신앙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조건 없이 받아들여셨다는 말씀을 따르라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8장 24절에서 30절의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라는 말씀이 연상됩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연이 생기기전, 산들이 자리 잡기전, 언덕들이 생기기전에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는 전지전

능하신 하느님 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스런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셨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마르코 복음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이임을 느낀다면 그 신비의 가장 자리에 간 것 이라고 류 신부님은 거듭 강조한다.

(대담: 박병태 이나시오 편집고문)

## [전화번호 정정]

2014년 본당 달력 광고의  
**스마일 틀니치과** 전화번호를  
**8544 1770** 으로 정정 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 대법관, 성군관 대법관, 맥쿼리대 통번역사.  
주요 법률서비스  
보상관련(교통사고, 직장사고, 공공장소사고 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가족법(이혼, 재산분쟁, 자녀양육, 유언장), 파산법(회사청산, 개인파산) 부동산 & 비지니스매매, 상가 임대차, 각종계약서, 주류라이센스  
Suite 124, Level 6, 330 Wattle st Ultimo  
**T 9281 1771, F 9281 1774**

Healthier choice for Healthier Living  
**신선 자연건강식품**  
**HealthPlus**  
**MEKEN**  
버우드 본점 Tel: 02 9744 7000 / 22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시티 전시장 Tel: 02 9264 5200 / Shop 10, 324 Pitt St, Sydney NSW 2000

**제일종합금융**  
출론 · 비즈니스론 · 상업용자 · 건설용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pping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스/트/우/드  
**하나식품**  
모든 식료품,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친절환 서비스  
- 박정철 요한 -  
**Tel: 9874 1581** 27 Railway Pde, Eastwood

**제이원 보석**  
J.W.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잔치 등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금 매입합니다.  
**T. 9763 1355 M. 0423 672 553**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 한국의 천주교회사

28 -최종회



## 신유박해

신유박해는 1801년(순조 1년)에 발생한 조선의 세 번째 천주교회 박해사건으로 4대박해 중 하나이며, 천주교회 창설과 성장발전에 공헌한 많은 분들이 순교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시파와 벽파의 세력다툼에서 벽파가 사교(邪敎)인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워 그들의 오랜 숙원이던 정적인 시파를 제거한 것이다. 신해 박해(1791년) 이래 “정학(正學)인 성리학이 번성하면 사학(邪學)인 천주교를 소멸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천주교에 대한 온건한 정책을 펴오던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갑자기 승하하자, 그의 아들 순조가 겨우 11세로 왕위에 오르니 자연히 왕실의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 대리정치)을 하게 된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 죽음에 찬동하였던 벽파의 실세 김구주의 누이로써 벽파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정조 재위시 친정 오라비 김구주가 숙청당하고 친정이 몰락하는 수모를 당했던 정순왕후는 마침내 가슴에 응어리진 한(恨)을 풀 기회가 온 것이었다. 이에 사학을 믿는다는 구실을 붙여 눈에 가시 같던 남인들을 몰아낼 것은 불을 보듯 훤히 한 것이었다. 사실 신유박해는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론의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남인의 실권자이며 삼정승을 두루 거친 채제공도 이미 죽은 후라 이를 막아줄 세력조차도 없었다. 정순왕후는 왕의 즉위를 공포하는 글에서 척사(천주교 배척)를 표방하며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이는 인륜을 무시하는 사교를 뿌리 뽑아 나라의 기강과 윤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아래, 정적인 남인들과 진보적인 사상가들을 무리 없이 제거할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

1801년(순조 1년) 1월 10일에 정순왕후는 언문(한글) 교지를 내려 천주교 금지령을 선포했다. 금교령(禁敎令)의 전문을 보면 “사학은 어버이도 임금도 없으며 인륜을 무너트리고 저절로 오랑캐와 짐승의 지경에 떨어지니, 감사와 수령은 사학을 하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개전하지 않는 무리에게는 역률로 다스려 진멸 함으로서 따르는 무리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결국 이 금교령을 근거

로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고야 말았으니, 실로 하찮은 새우들의 싸움에 고래등이 터진 격이다. 그리고 천주교도를 잡아들이기 위해 오가작통법을 이용했다. 오가작통법은 본래 다섯 가구를 묶어서 강도 절도 같은 범법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치안 유지 법이었다. 이법을 천주교도 색출에 동원하여 다섯 집끼리 서로 천주교도가 있는지 감시하고 고발하게 했다. 만약 관가에 미리 고발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집에서라도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다섯 집이 모두 화(禍)를 입는 악명 높은 연좌죄(連坐罪)를 실시해 전국을 피바다로 몰아넣었다. 이때에 천주교 신자라면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처벌하니 신자가 아니면서도 오히려 개인 감정에 의한 허위 고발 등으로 희생된 사람들도 부지기수(不知其數)였다. 또한 전에 살던 사람이 신자라 교회에 관한 문건이 나오면,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애꾸진 피해를 보기도 했다.

여기에서 신유박해 이전의 조선의 사회상에 대해 적어본다.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는 당시 성리학적 지배 원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새로운 원리를 추구한 일부 진보적 사상이, 부패하고 무기력한 봉건 지배 체제에 반발한 민중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1794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국내에 들어오고, 정조왕의 천주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은 18세기말 교세 확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유박해는 급격히 확대된 천주교세에 위협을 느낀 지배세력의 종교 탄압이자, 또한 이를 구실로 노론 등 집권 보수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 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들을 탄압한 권력다툼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신유박해는 일시적으로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궁극적으로 신자들이 수도권의 박해지를 피해 강원도와 경상도의 심산유곡(深山幽谷)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교우 촌)가 형성되고, 이로서 산간벽지에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교회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신유박해를 계기로 교회 지도층인 양반신자 대부분이 순교하거나 교회를 떠나 중인이하 신분층이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해 민중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신유박해의 순교자들은 중국인 천주교 신부이자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를 비롯

해 정약종, 이승훈, 황사영, 권철신, 이가한, 이윤하 등 남인 학자들과 순수 종교인으로는 강완숙, 유항검 일가, 이순이, 최창현, 이존창, 윤점해 등이며 이 옥사로 1년 이내에 죽은 신자만도 삼백명이 넘었다. 기록에 따라 순교한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주문모 신부는 박해기간 동안 강완숙 집에 거처하고 있었으나 당시 배교자 김여삼의 밀고로 신부의 은신처가 알려지자 정조의 서제 은언군의 처 송 마리아가의 거처인 폐궁(廢宮)으로 피신하였다. 그 후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신자들의 희생을 막기위해 스스로 출두하여 5월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이때에 송마리아와 며느리인 신마리아는 주문모 은의죄로 사약을 받고 순교했으며, 강화도에 유배중인 신언군도 가족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사사되었다. (양쪽은 참수형을 하지않는다).

순교자 최창현 요한(1759-1801년)은 한양의 중인인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1784년 이벽에게 교리를 배우고 한국최초의 평신도 총회장을 맡은 분이다. 황사영 백서에는 “총회장 최창현 요한은 중인으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남보다 먼저 입교하였고, 몸가짐이 평화롭고 언행이 공정하여 20년을 하루 같이 지냈다. 그는 표양이 순수하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정의로우서, 누구든지 의혹이 생기거나 곤란을 당하여 몹시 근심스럽고 답답할 때에는 그의 말을 몇 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 졌다. 교우들 중에 덕망이 제일 높아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의 신자들도 “이분은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고 전언했다. 이 박해로 정약종, 최필공, 홍교만, 홍낙민, 이승훈이 등은 서소문 밖에서, 이존창은 충청도 공주에서 처형당하고 권철신, 이가한은 옥사(獄死)했다. 이가한의 본관은 여주이며 증조부인 이익의 실학을 계승한 유능한 학자로 당시의 젊은 유생(학자 지망생)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승훈의 외숙이기도하다. 이가한은 한국천주교회 발상지인 경기도 광주 목사(시장) 재직시 천주교도 박해에 앞장섰던 장본인으로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다. 이존창(1752-1801년)은 충청도의 사도로 이 지방에서 천주교 전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많은 신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몇 번의 혼들림으로 ‘하느

님의 종’에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존창의 신앙에 대하여 신유박해의 영광의 순교자인 최창현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신자는 권일신 정약종, 이존창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때에 여주와 양근에 갇혔던 이중배, 최필제 등의 경기지방 천주교도들도 다수 처형 당했다. 그리고 5월22일(양력 7월 2일)에는 주문모를 도와 6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교회지도자 강완숙이 8명의 동료와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로 순교했다. 도대체 강완숙이 누구시기에 당시의 모든 신자들이 그분을 애모(愛慕)했단가? 이분은 신앙인 이전에 위인(偉人)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조선 5백년 역사상 ‘가장 잘난 여자’ 라고 보면 된다. 또한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념의 차이로 잠시 멀리한 정약용 정약전 등은 귀양 보내져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약용은 경기도 장기, 전라도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되었다. 이때에 다산은 ‘목민심서’ ‘경제유표’ 등 많은 유익한 저서를 남겼다.

후기: 필자의 한국천주교회사 연재목적은 초창기 교회에 큰 업적을 남기신 순교자들과 시복 청원 중인 125위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복 청원 중인 125위 명단에는 기해박해(1839년: 10위)와 병인박해(1866년 : 19위)에서 소명 자료 미비로 성인 품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들도 자료를 보완하여 일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현재 윤지충의 123위의 시복 청원자 명단에는 신유박해의 순교자 53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시복 청원 중인 124위는 1심, 2심을 거쳐 최종 3심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3심에서는 1,2심의 결과를 뒤집은 적이 거의 없다니 기대해 볼만하다. 앞서 27회에 실린 한국 최초의 부활절 미사는 (1795년 6월 28일이 아닌) 1795년 4월 5일(양력)의 오기였다.

그동안 필자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신부님과 교우들께 감사 드리고, 알게 모르게 삽화연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편집국 담당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진원 미카엘)

**SDT**  
시드니일일관광

**시드니 일일관광**  
포트 스테판,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관광  
멜번, 케언즈, 뉴질랜드 남섬 등

**8214 8822** G Floor 302 Pitt St, Sydney  
**0411 457 222** 김예환 스테파노

**다이아몬드스파**

“맹그로브 마운틴의  
천연 심층 암반수”  
물은 물맛이 알차습니다!

**15리터  
\$9.90**  
Cooler  
대여해 드립니다.

**0416 100 499 / 0404 044 117**

**WISDOM EDUCATION**  
OC, SELECTIVE & HSC SPECIALISTS

✓ Primary School subjects,  
✓ High School subjects &  
✓ HSC subjects

TERM2에 등록하시면 **매학기마다 20% 할인**\*

Tel: (02) 8710 3466 | 3 John St, LIDCOMBE  
www.WisdomEducation.com.au  
\*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라스마니아로 오세요**

공항 픽업 부터 관광 숙박 식사 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단체, 피정환형

**0400 876 663**  
**03 6273 1162** 홍 순기(다니엘)





2014년 1월 5일 주님 공현  
대축일(마태 2,1-12)

질문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 동방박사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6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 아기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묵상

복음에서 우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주님을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고백하지만, 당시 유다 왕국의 임금인 헤로데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 이로써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헤로데 임금은 세상 종말 때에 심판자로 오실 참된 왕의 모습을 예표해 주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굳건해진 이스라엘 왕국이 남, 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 유다 왕국도 바빌론 유배를 거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주변 강대국들의 억압과 속박에서 자신들을 해방 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언제나 정치, 종교,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모든 권력을 휘두르며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헤로데 임금은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과 메시아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존재가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결국, 헤로데의 경배(?)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동

방박사들의 경배(!)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편성이 시작되는 사건이었다. 한편,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바친 황금은 아기 예수님이 참된 임금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유향은 아기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지이고, 몰약은 인간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렇다면,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나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  
(마태 3,13-17)

질문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중 받았던 행복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5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만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따랐던 일이 있습니까?

16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세례 받을 때의 이야기를 해 봅시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어떤 경우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묵상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

는 장면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첫 만남을 전하고 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마태 3,11)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마태 11,11)고 말씀하셨다.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하면서 억압과 속박의 상태에 놓여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시나이 광야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요르단 강을 건너 자유와 해방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어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으로 당신 사명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기에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첫 관문이며, 우리를 묶아뒀던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기준들을 벗어 버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오늘 복음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들은 음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뒤에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장면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 들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세례성사 때의 첫 마음을 되새기면서 세상의 모든 악습을 끊고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생활, 곧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1월 19일 연중 제2주일  
(요한 1,29-34)

질문

29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한 눈에 하느님의 일꾼으로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 가족이나 이웃의 세례를 통하여 느끼는 큰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 세례 후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해 주었던 체험이 있습니까?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 나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묵상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육화와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한 인간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다.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하느님의 어린양”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증언하였다.

구약의 파스카 사건(탈출 12장 참조)이 흠 없는 어린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름으로써 모든 만배를 치는 열 번째 재앙을 거르고 지나갔듯이, 새로

**에핑건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모 제품 및 호주 토산물  
9876 8282(팔리팔리) / 9876 6071  
0404 070 338(24시간)  
15 Bridge St. Epping 에핑역 2분거리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머리방**  
에터미 회원님들께는 특별할인을 해드립니다  
<꼭 예약바랍니다>  
Tel: 8084 8417 / Mob: 0430 477 723  
12 Edgar St., Eastwood

**신개념 운동 재활병원**  
KIM'S HEALTHCARE CLINIC  
치료 마사지 / 운동 물리치료  
체중 관리 / 다이어트  
소그룹 운동 / 퍼스널 트레이닝  
뷰티 트리트먼트  
www.kimclinic.com.au  
스트라스필드 9764 1088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4층  
이스트우드 9858 2200 Level 2, 29 Rowe St. Eastwood

**리드컴안경원**  
다양한 제품  
친절한 서비스  
최신 신상품  
최신식 설비에 의한 정밀 시력검사  
Medicare 및 개인보험 이용가능  
9643 1000  
11 Joseph St, Lidcombe NSW 2135  
(중앙식품 맞은편, 해피마트 옆)

**의전 홈플러스**  
의류, 주류, 토산물, 건강식품, 식품, 생활용품  
블라인드 & 커튼 사업부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무료견적, 직접생산, 빠른시공  
Tel: 9742 1188 / Mob. 0400 11 8282  
49 - 51 Punchbowl Road, Belfield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ABN, GST 회사 설립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리드컴 제과점**  
Joseph's Bakery  
10 Joseph St. Lidcombe (중앙식품 옆)  
8084 8580 0431 523 157



운 파스카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죽음에서 부활로,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건너가게 해주는 확실한 표지가 되었다.

이러한 표지는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서 구현되고 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언제나 성령과 함께 우리 곁에 계실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

프라도 사제회의 창립자인 복자 앙트완느 슈브리에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이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연중 주일의 복음 말씀들을 접하면서 공생활동 안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와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노력하자!

1월 26일 연중 제3주일  
[마태 4.12-23]

질문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 절망 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선교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을 소개해 봅시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신앙의 힘으로 망설임 없이 결정했던 일이 있습니까?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

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목상

마태오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펼치신 주 활동 무대는 갈릴래아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도 갈릴래아였다.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도 바로 갈릴래아다. 결국,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갈릴래아에서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신 것이다.

한편, 예수님께서 부르신 네 명의 제자들, 곧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모두 어부였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곧바로” 생계의 기본수단인 그물과 인간관계의 기본인 가족(아버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없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곧바로 그분의 말씀에 따르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을 하느님을 위해 내어 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없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오히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를 베푸셨던 모든 행적들은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따르던 제자들도 이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나침반도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느님의 시선과 방법으로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그건 이집니다

“성경 권수와 구분”

\* 성경 권수

천주교, 개신교, 유다교에 따라 각기 다른데 이것은 종교 간 갈등과 번역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던 초대교회에서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그리스어로 된 「칠십인역」을 많이 사용했다. 「칠십인역」에는 가톨릭에서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포함돼 있었다.

유다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칠십인역」을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기로 새로이 「아퀼라」(Aquila), 「시마크스」(Symmachus) 같은 그리스어 번역본을 제작했다. 1517년 종교분열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존중과 가톨릭에 대한 반기로 유다교 전통을 따라 제1경전만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1)가톨릭

가톨릭은 구약성경 가운데 제1경전과 제2경전 모두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신약성경을 포함해 총 73권이다.

구약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구분한다. 오경은 창세기·탈출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 5권이다. 역사서는 여호수아기·판관기·룻기 등 16권으로 이뤄져 있다. 시서와 지혜서는 욥기·시편·코헬렛 등 7권이다. 예언서는 이사야서·예레미야서·바룩서 등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성경은 총 46권이다.

신약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으로 구분한다. 복음서는 마태오·마르코·루카·요한 복음서 4권으로 이뤄져 있고, 사도행전은 1권으로 이뤄져 있다. 서간은 로마서·코린토서·갈라티아서·에페소서 등 21권으로 이뤄져 있다. 묵시록은 요한 묵시록 1권이다. 이로써 신약성경은 총 27권이다.

2)개신교

개신교는 구약성경 가운데 제1경전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신약성경을 포함하여 총 66권이다.

3)유다교

유다교는 구약성경의 제1경전만을 정경으로 인정해 총 39권이다. 유다교는 구약성경을 크게 세 부분, 즉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성문서 쾰투빔으로 구분한다. 율법서는 창세기·탈출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 총 5권이다. 예언서 21권, 성문서는 13권으로 이뤄져 있다.

이렇게 성경 권수를 세분하지만,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새 백성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단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성경 구분

1) 구약과 신약

구약은 하느님과 옛 백성 이스라엘이 시나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맺은 옛 계약을 의미하며 신약은 하느님과 새로운 백성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맺은 새 계약을 의미한다.

2) 제1경전과 제2경전

구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돼 있는 성경을 제1경전이라 하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그리스어 성경인 「칠십인역」에만 포함돼 있는 성경을 제2경전이라고 한다. 제2경전은 역사서인 토빗기·유딧기·마카베오기 상하권, 시서와 지혜서인 지혜서와 집회서, 예언서인 바룩서 총 7권이다.

교회는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에서 제1경전과 제2경전으로 이뤄진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을 합쳐 73권을 성경으로 최종 선언했다.

3) 정경(正經), 외경(外經), 위경(僞經)

① 정경

교회에서 올바른 경전으로 인정된 경전을 말한다. 가톨릭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어 성경인 「칠십인역」에만 포함돼 있는 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② 외경

정경은 아니지만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경전을 말한다. 가톨릭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 에녹서, 열 두 족장의 유언, 모세의 승천기 등을 외경으로 분류한다.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제2경전으로 분류하는 경전들을 외경으로 분류한다.

③ 위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는 저작을 말한다. 가톨릭에서 위경이라 부르는 저작으로는 영지주의를 드러내는 베드로 복음과 이집트 복음 등이 있다.

4) 장(章)과 절(節)

성경의 장과 절은 1550년께 처음으로 구분됐다. 장과 절은 성경을 편리하게 읽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그 구분이 속 내용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장과 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예담**  
Ye Dam Rice Cake 禮

- 떡케익
- 영양떡
- 이바지/페백
- 달레떡
- 일반떡
- 선물세트

20년전통의 손맛 그대로~ 정성스럽게 빚어 만듭니다.

**02 9740 5057**  
745 Canterbury Rd Belmore NSW

**Silverwater POWER GOLF ACADEMY**  
실버워터 파워 골프 아카데미

JONG GAP KIM 김중갑 마태오  
Unit 2/47 Vore St, Silverwater NSW 2128  
**T 02 9748 0002**  
**M 0412 108 340**

**first national**  
REAL ESTATE | Strathfield

**2013년 말 안국 예정의 좋은 투자 기회**  
한 주택 두 가구!!  
최대 7.6% 연 임대 수입 예상  
전액 Stamp Duty 면제 (\$600,000 이하)  
한인성당 도보 2-3분 거리

대표 권기향 **0432 379 972** 대표전화 **(02) 9764 2999**

**삼성모터스**

All Mechanical Services & Repairs  
Pink Slip  
Blue Slip  
LPG Inspection  
RTA 등록 ☒ 무료 대행  
Green Slip

**Since 1989**

**TEL : 02 9683 1045**  
Unit B7/23-25 Windsor Rd. Northmead





# “베드로와 유다”

지난 대림 특강의 주제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였다. 특강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인 날, 노랗게 불을 밝힌 네 자루의 불빛 위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하고 살짝 띄워 올린 주제가 어찌나 마음에 와 닿던지…… 요란스럽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두 손을 모으고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졌다.

예수회 류해옥신부님이 이번 대림특강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게 했다. 삼일에 걸친 강의 중에 몇 번인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가슴이 조이는 듯한 간절함으로 목이 메이게 하던 류신부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

강의 첫머리에 류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물려준 재산을 탕진하고 삶에 실패하여 부모 앞에도 서지 못하고 행려자가 되다시피 한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머니가 삶의 마지막 고비에 겨우 만난 자식의 손을 잡고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단다. 그 어머니에게 자식은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자식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오염을 한다.

하느님께 있어 우리의 존재는 세상 만물 그 어느 것 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했다. 죄란 무엇인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고 한다. 죄는 단순히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한다. 시기와 이기심 또한 죄가 된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영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류신부님은 죄와 함께 뉘우침과 회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펼쳤다.

죄책감과 회개는 다르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둘 다 죄를 지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죄를 지은 후에 유다도 울고 베드로도 슬피 울었다.

그러나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울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 이득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죄책감을 갖게 해 주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 베드로도 울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죄책감으로 울은 것이 아니라 뉘우침으로 나아가 울면서 회개를 했다. 그의 눈물은 그를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고 그의 회개는 예수님의 목에 다시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유다가 흘린 죄책감의 눈물과 베드로가 흘린 회개의 눈물의 차이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죄책감은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회개는 다르다. 긍정적이다. 새 생명으로 나가도록 해 준다. 뉘우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고 죄책감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 간다.

그리스 말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며 ‘가던 길을 돌아서 간다.’는 뜻이다. 유턴을 하는 것이다. 유턴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한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다. 빛을 떠나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90도로 돌아서는 것이다. 류신부님은 이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탕자의 비유’를 들어 말한다

성경은 그가 “제정신을 차렸다.”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탕자가 아, 나는 이 모양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며 유턴을 한 것이다.

제정신을 차린 그가 어떻게 돌아오는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겸손해져서 돌아온다. 그는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기까지는 그에게 평화가 없었다. 아버지도 아들을 다시 만나기까지는 쉴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들이 이제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힘들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문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껴안았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순간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고 평화가 찾아오는 때다. 다시 사랑 받는 아들이 된 것이다. 이것이 회개를 할 때 얻게 되는 아름다운 은총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느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 그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한 발을 우리를 향해 내딛고 계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어 류신부님은 말한다. “님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 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은 찻찻하지(평온하게 가라앉지) 않나이다. 내 마음 안에서 쉴 곳을 발견할 때까지는 하느님, 당신도 쉴 수가 없었나이다.”

뉘우침은 회심을 하게한다. 회심은 방

향을 바꾸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뉘우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돌아서야 한다. 뉘우침은 ...로부터(from)이라면, 회심은... 안으로(into)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성 바오로는 교회를 없애려는 것에서부터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섰다.

각각의 회심은 임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부르심이며 그것에 대한 응답이다. 임무나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뉘우침과 회심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뉘우침에 머물고 회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회심으로 나아가지만 거기서 멈춘다. 뉘우침이나 회심은 계속적인 과정이다. 어떻게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 그녀는 뉘우치고 회심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을로 가서 외쳤다. “와서 보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다윗,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바오로, 성 이냐시오 등 많은 성인들은 다 회심을 체험했고, 그 후에 사명을 수행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은총의 아름다움이다. 은총이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사랑이시다.

2014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과 회심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회심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는다. 회심의 은총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별과 같이 빛나고 밝을 것이다.

(미디어 편집국장)

## ‘노숙자 예수’ 청동상 바티칸 인근에 등장 노숙인 동사한 자리에 세워 “거리의 가난한 예수님” 시사

추위에 떨며, 얇아 보이는 담요 한 장으로 머리와 얼굴까지 모두 덮어쓰고 웅크린 자세로 누워있는 ‘노숙자 예수’ 조각상은 캐나다 출신의 조각가 티모시 쉬말츠가 마태오복음 25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이 청동 조각은 낡은 담요 한 장으로 온 몸을 감싼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을 한 예수를 담고 있다.

사람들은 이 조각상을 보고, 얼굴까지 담요를 덮어쓴 채 그저 발목 아래만 밖으로 나와있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되어 서야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다음 순간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

지난 11월말 교황 프란치스코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청동 조각상을 축복하고 차디찬 조각상 무릎을 매만지며 몇 분 동안 기도를 바쳤다.

미국 뉴욕 성 패트릭 대성당과 캐나다 토론토 성 미카엘 대성당에서 퇴짜맞은 이 조각상을 로마, 바티칸 인근에 설치 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얼어 죽은 한 노숙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쉬말츠는 교황이 조각을 매만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것이다. 이 조각상은 바로 교황 성하께서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 “축제”

최근 우리 보통 사람의 삶에서는 보기 드문 축제의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그 나라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이었다. 만델라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새벽 2시의 어둠을 뚫고 달려온 국민들은 대통령의 집 앞에서 촛불과 꽃을 들고 노래와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너무도 기이하게 생각된 한 외신 기자가 당신들은 왜 슬피 울지 않고 춤을 추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의 위대한 영혼을 기리고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장례식 날은 우리도 그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울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한다. 이것은 나에게 많은 상념을 안겨 주었다. 위대한 그의 영혼! 어째서 아직도 미개한 땅 아프리카라는 곳의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토록 존경과 사랑을 그나라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받는가? 그것은 그의 삶의 발자취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만델라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전세계의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은 다 참석하였고 그들은 각자의 소신이나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한결같이 위대한 한 인간의 정신을 기리고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함께 하였다. 미국의 대통령 전 용기에는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역대 4대 대통령들이 함께 타고 자리하며 차를 마시고 담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또한 얼마나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인가. 이들을 하나로 만나게 한 만델라 대통령의 위대한 관용 정신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던 투투 대주교님이 계셨다.

투투 주교님은 만델라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 비전을 상담해 주면서 과거 백인들이 저질렀던 잔악한 흑인 탄압 정책과 잘못들을 확실히 지적해 주어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다시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되 응징은 하지 말고 용서와 화해로 이끌어 가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렇게 하여 남아공은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 할 수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위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고 위대한 인간 정신의 승리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남아공은 만델라 대통령을 떠나 보내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존경 받는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오히려 축제의 분위기에 더 가까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한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된다. 시간

으로는 새해라고 하지만 진정 우리 교회의 새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들 모두 몹시도 아팠던 지난 2년의 시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교회 30여년의 역사 속에 있어 왔지만 지난 시간들처럼 거의 전 교우들이 다 상처받고 갈라지고 서로를 믿지 못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

어디서 퍼져 나온 건지 출처도 알 수 없는 연기 같은 의심의 바람은 우리 모두를 가만 두지 않고 계속 흔들었다. 이 흔들림들로 인하여 신앙의 미덕도 신앙 자체도 시험 받지 않았던가! 이제 그 바람은 지나간 듯하다.

그러나 진정한 그 바람의 근원지도 사라졌는가? 우리는 서로 없었던 일로 쉬쉬하면서 말하기를 꺼려 하고 있다. 함께 동고 동락하며 무덤까지 가야 할 사이이기에 모른척 없었던 척 하고 싶지는 않은가? 폭풍이 일고 큰 파도가 들이쳤어도 폭풍이 가라 앉고 나면 바다는 다시금 고요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롭고 은빛 햇살만 반짝일 뿐이다. 그 밑은 어떨까? 폭풍으로 뒤집힌 바다 속은 그렇지 못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환경이 될 수 있다. 지난 2년의 그 난리를 겪은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이제 폭풍도가라 앉았으니 지난 시간은 묻어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지는 않는가? 과연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언젠가 읽었던 존 포엘 신부님이 쓰신 신학교 시절 이야기가 생각난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았던 신학생 친구에게 정면으로 그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지적하는 사랑의 매를 든 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한 신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랑의 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는 이런 사랑의 매를 과연 들 수 있는 용기와 깊은 사랑이 있는가? 모두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을 하고서도 너무도 태연히 아무 일도 안한 것 처럼 평상을 유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 교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정녕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에게 이런 사랑의 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남아공이 위대한 주목 받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확실한 과거사의 청산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용서였다.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곤 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후회와 잘못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해서 또 다른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꽤 오래 방지하기도 했다. 이번엔 정말 도를 넘어 가톨릭 신자가 하는 저항이 아니라 마치도 노조에서 하는 저항처럼 보여 너무도 안타깝고 슬펐다. 또 너무 많은 교우들이 흔들렸었다.

이런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 무엇이 잘못이었고 우리의 행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버릴 수 없는가치가 무엇이며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등을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지난 2년의 시간에 대한 확실한 청산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올 수 있을까? 포장된 화해와 용서, 일치를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각자 지난 시간 가졌던 자신의 생각과 판단 행동을 반성해 보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훼손한 적은 없는지구체적인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성찰하면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당사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확실한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성숙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 우리 모두가 관용의 정신을 살

천하는 위대한 제 2의 만델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령이 담 넘듯이 슬쩍 아무 일도 안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청하고 용서해 주는 참된 신앙인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사는 진정한 진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너무나 기뻐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때 남아공의 국민들 보다 더 기쁘고 참된 평화의 축제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회개와 용서. 말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화해하며 일치하는 거듭난 새 주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아픔만큼 성숙해 진다고 하지 않는가? 아픔 뒤에 성숙해 지는 우리의 모습. 갈라짐과 헤어짐이 아니라 더욱 뭉치고 화합하는 그것이 바로 새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바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축제가 되리라고 믿는다.

(박선미 안나)

### 1분 묵상

## “칭찬” 내적인 것에 대한 칭찬받아야...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란 책에서는 칭찬할 때 쓰기 좋은 말 10가지를 제안한다.

‘당신은 참 좋은 분이입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일을 참 잘 하셨습니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루에 얼마나 듣고 말하고 있을까. 때로는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일치해야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또 칭찬도 평소에 자주 연습해야 정작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더불어 언어적 칭찬과 비언어적 태도가 일치해야 한다. 말로는 ‘잘했어!’라고 하면서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상대는 정말로 칭찬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인간은 누구나 칭찬을 먹고 자란다. 칭찬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감을 배우게 된다. 아이의 작은 성공도 크게 칭찬해

주는 부모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진 자녀를 만든다. 특히 구체적 행동에 대한 칭찬은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된다.

성경에는 칭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칭찬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인다면 다른 사람들 눈에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다. “네 입이 아니라 남이 너를 칭찬하고 네 입술이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잠언 27,2).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마태 6,2).

또 진정한 칭찬은 외적이 아닌 내적인 것에 대한 칭찬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겉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마라”(집회 11,2).

인간사회에서 칭찬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은에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사람은 그가 받는 칭찬으로 가려진다”(잠언 27,21).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닌 하느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다.



# “2014년!! 우리의 바람은?”

가는 세월을 누군가는 흐르는 물에 비교하고 혹자는 바람에, 또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는 모래에 비교하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 하면 아쉬움 속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시간들을 기대하며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지 윤인숙 글라라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새해 새아침 새빨간 태양이 솟아 오른다”고 표현한다. 새해 아침의 태양이 어제와 다를 리 없건만 새해 아침의 일출을 보려고 어떤이는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그만큼 새해에 거는 기대는 너, 나 할 것없이 희망적이다.

2014년! 새해에 거는 우리의 공동체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바람을 교우 11분에게 들어봤다. (편집국)

지난 해에 구역활동을 통하여 여러 형제 자매님과 가깝게 지내며 좋은 인연을 갖게 되어 기쁜 한해였지요. 또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감싸 안고 잘 견뎌 온 우리 천주교 공동체에 소속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의 바람은 교우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사업부가 있어 5년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되면 소공동체에도 노인층 참여도가 높아지겠네요.

- 고재숙 마리아 -

우리 본당에 활동단체도 필요하지만 기도나 성체조배, 성서 통독 등, 영성을 기울 수 있는 작은 동아리 활동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옥 마리아 -

지금까지 주임신부님의 묵요 성경강좌를 들으며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신약부터 시작하여 꼭 이어나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은선 마르타 -

신앙 안에서 일치되어 모든 교우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정 데레사 베네딕다 -

봉사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총 속에 기쁨이 넘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김유철 스테파노 -

끊임없는 기도와 찬미로 삶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정현희 엘리사벳 -

2014년은 지식의 은총과 자신감의 은총을 구하고 싶습니다.

- 장규범 사도요한 -

은빛 대학에 다니며 일주일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은빛대학 학생들에게 노년의 즐거움과 여유를 가질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이국자 사라 -

성당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차분하게 묵상과 성체조배를 주로 할수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 줄리아 -

개인적으로 신심단체에 새롭게 가입하여 주님과 좀더 깊은 체험을 나누고저 노력하고 싶습니다.

- 12월 16일 월요저녁미사에 나오신 어떤 교우분 -

자연계의 질서는 그것을 유지 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튼튼한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신앙공동체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건설의 일꾼이요 벽돌 한장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강 가스틀로 -



## “사진으로 돌아보는 2013년 본당의 이모저모”



〈중, 고등부 열린 마음제〉



〈유아세례식〉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 지원 (장학후원회 결성)〉



〈부활대축일 점심나누기〉



〈경로잔치〉



〈성탄예술회〉





〈전 신자 신앙학교〉



〈교리경시대회〉



〈임산부 축복식〉



〈조지 펠 추기경님 본당방문〉



〈본당 친교의 날〉



〈은빛대학 승격〉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청년예술제〉



〈은총나라〉



〈세례식〉



〈아프리카, 파푸아뉴기니 지원(사랑의 나눔 운동)〉





## “영적 행복 안으로 들어가기”

한동안 손 놓았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다. 마리아가 준 김용렬 신부님의 강론 CD를 들을 때면 털실 꾸러미는 항상 내 곁에 있기 마련이다.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신부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공을 들인다.

숨이 차도록 열심히 살던 마리아가 갑자기 삶의 회의에 빠져들 무렵 만난 것이 김 신부님의 강론이다. 마리아는 그간 이기심과 악습에 자신을 움아매어 지냈는데 그 강론을 계기로 한국에 나가 감곡매과 순례지성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김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봉사적 삶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곳 순례성당에서 머물렀던 ‘기쁨 방’의 이름대로 이제 남은 삶을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보여준다.

갑갑했던 마음에 생명을 들이킨 듯 회소할 수 있었던 마리아는 그 기쁨을 나누고자 김 신부님의 강론이 실린 CD와 테이프를 열심히 주변사람들과 나누기에 바쁘다. 그날 마리아가 건네 준 테이프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영적 행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

가기’였다.

행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로 상처로부터의 해방을 꾀었다. 의식, 무의식에 깔린 상처는 받은 상처뿐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상처, 가계상처(집안내력)까지도 포함된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살기, 그리고 셋째로 봉사 생활이다.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 보다 남을 섬길 때, 봉사 받을 때 보다는 봉사할 때, 더 큰 기쁨을 얻음을 강조한다.

봉사는 버림의 영성, 결례의 영성, 연탄불의 영성 등으로 나누어 진다. 연탄불이 붙으려면 불이 붙은 연탄 위에 시커먼 연탄을 넣어 구멍이 서로 맞아야 한다. 이 때에 탄과 탄 사이 번개탄을 넣으면 불이 더 잘 붙는다. 시커먼 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번개탄이 되자는 말은 남에게 이바지 하는 삶을 살자는 말이다.

나는 결례의 영성에 마음이 지켰다. 결례의 존재 이유는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더러운 것(죄)을 많이 모은 땅이 당도 높은 열매를 맺

듯이 더러운 것 끌어 드리며, 역올하게 밟히고 모욕 당하는 것조차 귀한 영성을 맺는데 소중하다는 신부님의 말씀은 상처 많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 주었다. 고난을 넘어 인생의 추위를 견어낸 어려움, 그 뒤안에는 영혼을 성숙시키는 힘이 있음을 인식시켜주었다.

일전에 찾은 잡화상에서는 색 색깔의 털실로 짠, 손바닥만한 예쁜 뜨개질을 비닐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투명 비닐 안의 물건은 정갈하고 예뻐서 돋보였다. “이것이 뭐예요?” 물으니 아크릴 실로 짠 행주라고 한다. 신기하여 한 장 사들고 와서 써보니 부드럽고 세제 없이도 그릇의 기름기가 잘 닦여지고 손으로 꼭 짜 넣면 쉽게 말라 일석이조였다. 결례가 마루나 물건을 닦고 흠치는 것이 생명이라면 행주는 그릇을 닦고 가족의 식 공간인 부엌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 생명인 아닌가. 결례나 행주, 외형적으로는 비천하지만 그 역할을 생각하면 숭고하기까지 하다

강론을 테이프를 통해 들으며 자투리 실로 누군가를 위한 뜨개질을 잠자던 나의 영성을 깨우고 작은 행복을 엮는 순간이기도

했다. 또한 삶에 대한 것, 내 마음 비우기에 대한 생각들이 밀려오기도 했다.

우리가 애착하는 것 중 마지막 한 가지까지 포기할 때 비로써 기적은 이루어지고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욕심으로 내 갈등이 커지기 전에 마음을 비우자, 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자... 등 여러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물어 마지막 코를 마무리 할 때까지 이어진다. 뜨개질에 몰두하며 찾아 드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코를 잘못 꿰면 풀어서 다시 짜는 여유를 누리며 드디어 행주 50여장을 마무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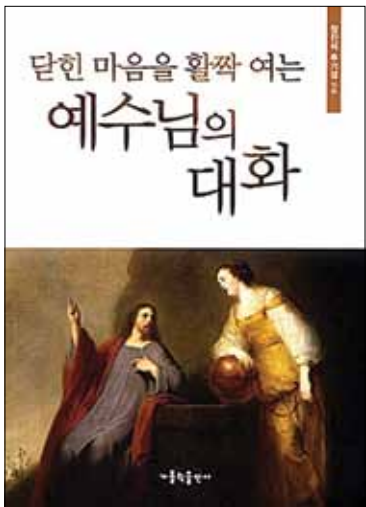
한 코 한 코 마다 강론을 통해 받은 지혜와 사랑을 담아 완성한 몇 장의 행주를 들고 나의 집을 나섰다. 오늘 모임에서 만나는 이들과 나누려는 마음에서다. 받는 이나 주는 나 자신 모두, 앞으로 남은 생을 결례나 행주같이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자신의 살을 헐어야 하는 겸손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며 영적 행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최옥자 데레사)



## “닫힌 마음을 활짝 여는 예수님의 대화”

(정진석 추기경 지음/가톨릭출판사)



예수님은 자신을 계략에 빠트리려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한 8,3-6),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는지(요한 5,16-18), 하느님이 아버지임을 증명해 보라(요한 8,19)는 등의 질문에 예수님은 질문 속 함정을 교묘히 비껴가며 복음을 설파했다. 또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과도 대화하는 등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하느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반

박할 수 없었다. 율법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조차 예수님 말씀에는 어떠한 토를 달 수 없었다.

책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을 두고 대답의 배경과 대답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저자 정진석 추기경은 예수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상과 풍습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지형까지 상세한 배경 설명을 곁들였다.

정 추기경은 “예수님이 진리의 근원으로

비유를 통해 전하신 가르침뿐만 아니라 강연이든, 담화든, 질의응답이든 모두가 지혜 그 자체”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진리이고 금언이며 격언이다”고 말했다.

쉽게 풀 수 없는 선과 악의 신비, 삶과 죽음의 신비, 영원한 생명의 신비, 고통의 신비에 관한 궁금증으로 답답해 하는 신자들이에게 선사하는 정 추기경의 성탄 선물이다.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수 7:30pm / 화 7am / 목 9:30am, 7:30pm / 금 9:30am / 토 9:30am (첫째주, 둘째주)
- 기 타 : 매 주일 리더쉽(8:30am, 9:40am, 10:15am), 캠프(9:30am)에서 성당까지 셔틀버스 운행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후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HB 스트라 Music College**  
13 Abbotsford Rd, Homebush

**HB 크로이돈 Music Academy**  
Add: 64 Webb St, Croydon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콩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9745 5353** 원장: 허마리아 0433 534 881  
부원장: 허 난 0425 315 268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주)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무료 바구니 대여 무료 전적 상담

차량 6대 보유: 최대형 10톤/9톤/5톤/4톤(2대)/벤트2대

국내 장터거래·유역생이사·대규모 이사·사무실 이전·일반이사·포장이사·해외이사·항공화물·항공택배·장고임대

**대표 허요셉 02 9648 2424**  
**0431 24 24 24**

**HB (주)한진 IT**

**TPG, Telstra Bigpond 인터넷 공식 업체**

개인컴퓨터 / 대기업 서버 / 네트워크 / 소프트웨어  
컨설팅, 판매, 셋업, 유지, 보안, 수리까지!

**경력** 시드니대학 : (Advanced) Computer Engineering (Hans) 졸업  
Hewlett Packard Enterprise Infrastructure 컨설턴트 근무

**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 Specialist : 현 HP 근무, CCNA, CCDP/CCNP  
운영체제 Specialist : 현 Microsoft 근무, MCSE

**상담전화** T 9648 2424 M 0433 11 55 09  
메니저 허 안토니오 e-mail: it@hanjingroup.com.au

**HB Education College**

**경험많은 최고의 강사진구성**

**1:1지도 및 2:1지도**

수학 (구분형 서울대 수학과출) HSC 4unit 지도  
영어 (Serena Harries 현재 호주학교 교사)  
물리 (허안토니오, 천재물리소년 16살 대학수석)

**문의: 대표 허안토니오(8064 7466)**  
**원장 허마리아 0433 534 881**